

농식품부,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민·관 협업 등 총력 대응

- 박범수 차관, 가락시장 찾아 과일·채소 반입물량 및 거래동향 점검
-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 강조
-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김치협회·대아청과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1월 10일(금) 서울시 송파구에 소재한 가락시장을 방문하여 배추·무·감귤·딸기 등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 주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겨울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사)대한민국김치협회, 가락시장 도매법인인 대아청과(주)와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채소 생산량의 50%가 경유하는 농산물 도매유통의 핵심으로 현재 전국에 3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박범수 차관은 간담회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 철저한 생육관리와 더불어 도매유통 과정에서 적절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고, 참석자들도 도매시장에서의 농산물 수급 안정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였다.

이어서 최근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겨울배추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현재 배추는 김장 종료 후 가정 소비가 많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대비해 김치업체 등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이 따른 조치이다.

참석자들은 봄배추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향후 가격 상승요인이 크지 않으므로 배추를 저장하고 있는 산지유통인, 김치가공업체 등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출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이해를 같이함에 따라 업무협약에 참여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김치가공업체는 저장 중인 배추를 설 성수기 등 정부가 요청하는 시기에 도매시장에 출하하고, 도매법인인 대아청과는 사업 참여 김치가공업체에서 대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며, 농식품부는 해당 출하 물량의 보관료와 향후 해당 업체의 봄 배추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일일 공급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책기간(1.7~1.27) 중 역대 최고 물량인 16만 8천톤을 공급하며, 할인지원도 역대 최대 수준인 총액 600억원 규모로 늘려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5년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발표(1.9.),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국민들이 먹거리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정부와 뜻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민생안정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도매시장)	유통소비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211)
	유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현 (044-201-2221)
(수급)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배민식 (044-201-2681)
		담당자	서기관	김성만 (044-201-2685)
(배추)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044-201-2232)

